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

교수연구년제, 교직원 해외여행 지원규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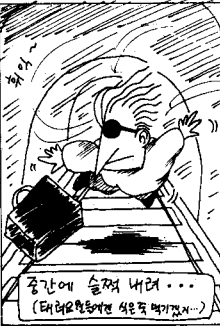
교무처(처장:서정석 경영 교수)는 교원 명예퇴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명예퇴직 희망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우리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만 60세 이상인 자로 제한하며 감봉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연구년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교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명예퇴직을 하고자 하는 교원은 명예퇴직 희망일의 1년전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교무처장에게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사안이 결정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이 결정되면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일을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수당지급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수당 지급에 있어 산정 기준액은 퇴직 당시 월봉급의 70%에 정년 잔여 개월수를 곱한 값이다. 여기서 말하는 월봉급이란 상여금과 정근수당을 제외한 순수한 봉급을 뜻한다. 한편 교무처는 교수연구년제

도와 교직원 해외여행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6개월과 1개월 이 두 형태로 신청을 받던 연구년제의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연구교원의 자격은 우리학교에서 교원으로 6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연구년의 개시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어야 다음 연구년을 신청할 수가 있다. 연구교원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6개월 신청자에게만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1년 신청자에게는 상여금, 정근수당을 제외하고 지급하던 것과 다르게

모든 연구교원에게 상여금, 정근수당을 포함한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이에 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실적을 연구처에 제출해야 하고 국내 타대학에 출장하거나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또 연구교원은 연구년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우리학교에 재직해야 한다. 그 외에 해외여행자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르게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며 장기해외여행기간은 교원 연구년제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연구년으로 처리하게 된다. <강남이 기자>



(제271회) 최 용 섭



양캠퍼스 가을 대동제 개막

참사람 찾기공모, 노래마당 등 다양 행사 선보여

양캠퍼스의 가을 대동제가 오는 14일과 27일 수원캠퍼스와 서울캠퍼스에서 각각 개최된다. '사람찾기'를 주제로 오는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되는 수원캠퍼스 대동제에서는 자전거달리기대회, 경회가요제, 참사람찾기 공모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며, '황규원(환경2)양둑기'의 일환으로 대동제 기간 동안 학생회관과 공대식당 앞 광 1백원인상을 통한 모금활동도 실시된다. 대동제 행사일정은 △14일: 자전거달리기대회, 개막식 △15일: 사람찾기 가을 운동회 △16일: 예술제(외대), 철인경기(체대), 단대행사 △17일: 폐막식, 경회가요제본선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학생, 교수, 교직원들의 단합을 위한 '97경회 가을 운동회도 오는 15일 개최된다.

체과대 운동장과 야외 농구장, 족구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체육대회는 각 단대별 토너먼트 형식으로 족구, 농구, 축구, 여자 발야구, 8백계주, 줄다리기, 응원전 등 7개종목이 치뤄진다. 한편 서울캠퍼스의 '97 가을 하늬날'은 오는 27일, 개막행사인 교문앞 장승세우기를 시작으로 영화제, 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선보인다.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주제가 있는 영화제'에서는 아시아 영화 중 미개봉작을 노천극장에서 상영하고 27일부터 4일간 개최되는 '교황제전'은 종목별 각 단대 우승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축구, 배구, 족구, 농구 등 각종 경기를 치루며 될 이번 제전의 대진표는 오늘 중앙운영위원회가 결정, 발표한다. '하늬날 노래 마당'은 오는

24일 예선을 거쳐 30일 오후 6시 노천극장에서 본선을 치르며 1,2,3등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또한 인권복지위원회는 대동제 기간 중 '명백하고 현존하며 절박한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문화점멸의 주제를 다루는 '가을 경회강좌'를 개설, 운영한다. 문학, 영화, 만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27일부터 사흘간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오후 6시부터 열린다.

한국어교육부 백일장 입상

서울캠퍼스 국제교육원(원장:안영수 영문 교수) 한국어교육부 학생들이 지난 8월 덕수궁에서 개최된 '제6회 전국 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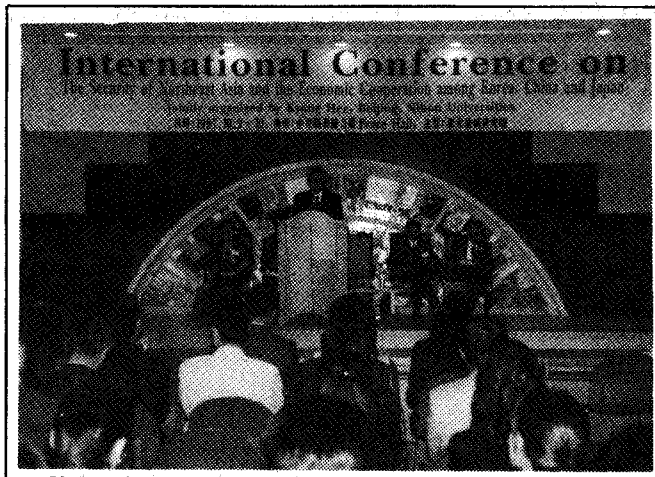
국인 한글백일장'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다. 양올래사(러시아)씨가 '편지'라는 수필로 우수상에 당선되었고 민자(중국)씨가 동상을, 정수아(프랑스)씨가 장려상을 각각 수상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받았다.

매년 한글날을 기념해 외국인 및 해외교포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 행사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이 주최하고 문화체육부가 후원한다.

외국대학교 교류 활발

10월 중 우리학교와 외국대학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우리학교 응원단이 일본 호쿠리쿠 대학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한 데 이어 오는 15일에는 북경일업대 총장이 우리학교를 방문하고 20일에는 모스크바국립대학의 Logunov교수가 물리학을 방문해 강연을 한다.



한·중·일 국제학술회의의 한·중·일 국제학술회의가 아태지역 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9, 10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3층 Peace Hall에서 열렸다. 우리학교와 북경대, 일본대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회의는 '동북아 안보와 한·중·일 경제협력'이란 주제로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운위, 학생회 및 학생운동 토론

지난 10월 1일 개최하려고 했던 서울캠퍼스 '하반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됨에 따라 위임사안 의결을 위해 기획된 '학대운영위원회(학운위)'가 지난 10월 10일 105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칙에 의거, 정부총학생회장, 단대 정부학생회장, 과 학생회장, 정부총학생회장, 정부동아리연합회장, 학자추사무과장만이 참가가 가능한 이번 회의의 해당인원은 총 64명으로 그 중 12명이 사고결 처리된 가운데 정족수인 26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1학기 평가사업보고, 1학기 결산보고, 2학기 사업계획보고, 토론, 성명서 채택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은 '학생운동 혁신, 학생회 강화'를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박정운(생물4)총학생회장은 이날 토론에서 "한총련을 지키려는 학우들과 함께 특별위원회를 건설하자"고 말했다. 한편, 김봉석(경제3)동아리연합회장은 "학생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공청회를 열 것"과 "학생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토론 후에는 '한총련 사수·혁신 및 학생자치권 수호'와 '전두환·노태우 사면 반대'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대·어학강좌 계약 문제로 논란

공대학생회가 오늘부터 실시하고자했던 어학강좌가 업체와 계약상 문제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공대학생회가 교내 어학강좌 기관인 국제교육원을 무기한 '세정'이라는 사실교육업체와 계약을 했고 계약과정에서도 강의운영, 업무 등에 대한 서면화된 논의가 없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해 학교는 강의실 이용에 있어 학교에 사전보고가 없었다는 점과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할 만한 제도의 장치가 없어 학생들의 피해와 혼란이 예상된다. 공대학생회측은 "계약이전에 세정에 대한 총학생회의 충분한 검증작업이 있었고 우리의

의 구두 계약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는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학교에서 문제삼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며 문제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학원과 계약을 파기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확대되자 공대학생회는 지난 9일 업체와의 논의과정을 거쳐 3개월과정 19만5천원의 수강료를 공대학생회에 예치하는 조건제시등 초기 계약상의 부실함을 보완하여 어학강좌를 정상시행하는 선에서 문제해결작업을 마쳤다. 이에 대해 국교원에서는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학생회주최 어학강좌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내단신

17일, 97하반기 채용박람회

인턴사가 주축하고 전국대학취업실(파)장 협의회, 서울·경기·인천지역 졸업준비연합회가 후원하는 '97 하반기 채용박람회'가 오는 17일부터 이틀간 동대문 거평프리미어에서 개최된다.

98년 2월 졸업예정자, 기졸업자,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박람회에는 97년 하반기 채용면접 기업 1백개 회사가 참여한다. 박람회 개관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증명서 발급 편의

교무처는 지금껏 민원우편을 통해서만 실시해오던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을 전화나 전보, FAX를 통해서도 받는다. 재학생 및 동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확대, 실시하는 이번 발급으로 받아볼 수 있는 증명서는 졸업, 재학, 재적, 휴학, 제적, 수료, 졸업예정, 학위수여, 학위수여예정, 교직이수확인 증명서이다.

발급 신청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학번, 소속을 기재해야 하며 수수료는 졸업생 1천원, 재학생은 국문은 5백원, 영문 1천원이다. 또한 우편료는 국내 1천3백80원이고, 국외는 나라별 해당금액이다.

노조, 10주년 행사 개최

노동조합은 오는 25일 '창립 10주년 맞이 기념행사'를 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한다. 기념식 및 단합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오전 10시, 1부 '역사마당'은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열리는 노조의 10년 사진전과 영상전을 선보이게 되고, 2부 기념식 순서에서는 공로상 및 모범조합원 표창이 있다. 노천극장에서 단합대회를 갖게 되는 3부 순서에는 장기자랑, 체육대회,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김종희 교수 문학평론가협회상 수상

국문학과 김종희 교수가 지난 11일 오후 6시 국민대학교 학술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6회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 협회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평문집 '문학의 전환기의 시대정신'으로 김교수는 그간 '현실과 문화의 상상력', '위기의 시대와 문학' 등의 평론집을 발간한 바 있다.

C.C.C.운동 활성화

지난 3월 7일 시작된 깨끗한 캠퍼스 운동(Clean Campus Campaign)이(우리신문 3월 7일자 제1113호 1면) 2학기부터 수원캠퍼스 총학생회와 학생처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대자보 뒤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 1회 학생과 교수가 함께 강의실 청소하기, 주 1회 텀장주관하에 캠퍼스 청소하기 등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 우선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홍보물 제작, 표어, 포스터, 아이디어 공모, 환경게시판 설치 등 C.C.C.관련 행사를 점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가을대동제' 이후 공식적인 C.C.C.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며 학생회관 환경미화 콘테스트도 계획하고 있다.

수원,대중평 6일부터 2일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97학년도 대학평가 인정제(대중평)'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수원캠퍼스를 대상으로 시작된다. 이번 대중평은 41개 대학에 모두 6개 영역(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1백개 항목으로 정량적(35%), 정성적(65%) 평가를 받아야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된다. 대중평은 결과에 따라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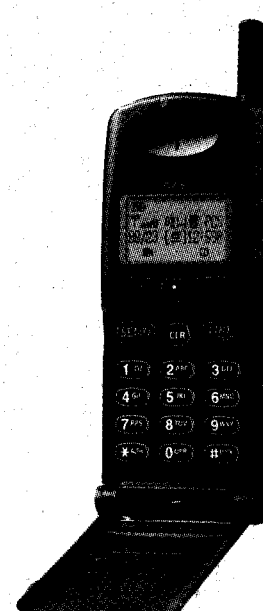
부는 우수대학에 보조금, 연구비, 장학금, 학술활동 지원 등의 재정적 지원과 장원의 중·감원, 학생 선발 자율권, 학과의 신설·폐지 등 학원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대중평은 '대학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회에 공표함으로써, 그에 관한 사회적 인정을 받게 하는 제도'로서 1994년부터 7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평가인정의 결과를 대학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믿을 수 있는 친구-삼성

기술의 魂으로 소리의 魂을 깨운다!

"그 모습은 산처럼 우뚝하고 소리는 용의 읊조림 같아, 위로는 지상의 끝까지 다하고, 밑으로는 땅속까지 스며들어 보는 자는 신기함을 느낄 것ियो, 듣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신라천년의 울림을 대대손손이 전해주는 장중하고도 영롱한 소리-에밀레종에는 현대 기술로도 밝혀낼 수 없는 신묘함이 배어 있습니다. 웅대하고도 맑은 울림을 자아내는 맥놀이 근원은 어디인지, 25톤의 쇠물을 쏟아 부으면서도 기포 한방울 남기지 않는 원리가 무엇인지, 지름 8.5cm의 가는 쇠막대로 그 육중한 몸체를 거뜬히 지탱하는 비법이 무엇인지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로 남아있습니다. 한국혼의 울림 에밀레종- 그 소리의 맥을 애니콜PCS의 맑고 깨끗한 소리로 이어 갑니다.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의 울림
에밀레종 몸머리 뒤쪽에 있는 대동모양의 울림판. 이 관(管)은 높이 96cm, 안쪽이 14.8cm, 외쪽이 8.2cm로 속이 비어있다. 한국종에만 있는 이 울림판이 에밀레종의 맑고 장중한 원음의 근원이야 추정된다.



한국인의 큰 울림-애니콜PCS 깨끗한 소리로 지켜갑니다.

외제의 아성을 물리치고 한국의 기술 자존심을 우뚝 세운 삼성애니콜- 국내 유일 무선통신부문 올림픽 파트너 획득에서 삼성 반도체 기술과 혁신 설계로 이룬 국내 최경량 애니콜PCS의 쾌거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의 신화를 만들어 가는 애니콜PCS- 한국 통신 기술의 큰 울림입니다.

애니콜PCS

또 하나의 가족 SAMSUNG

삼성전자